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에서 학생선

기 대학에 유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시아의 여러 곳, 특히 이곳 황성

강원도 찾아온 아이비리그 大學들

위하여 다니는 것과는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에 졸업생을 입학시키는 일은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각기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준비하면, 대등한 수준의 여러 대학 중에서 자신을 선택해 주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여러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을 데려가고자 한다. 그런 대학들은 자기네들이 맡아서 교육시킬 만한 인재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지 뽑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생선발에서 지나치게 기계적, 계량적 공정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누구를 맡아서 교육시킬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선발과 탈락의 구별자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어느 과목에서 몇 점,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 어느 집단에서 몇 위인가 등 모든 것이 엄격히 계량화되어 있다.

전문적인 눈으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각종의 질적인 자료들도 평가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학생의 성취동기나 포부수준이나 창의력이나 잠재력 등이 선발과정에서 제대로 노출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이 길들여져 있다. 거꾸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에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사람으로 교육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게 하는 고집스런 건학의 이념 자체가 있는지에 의의를 느끼게 한다.

<민족사관고 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자체, 전임 단체장 시책 백지화 신중해야

5·31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전 남지역 시·군에서 전임 단체장이 추진 해온 역점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들이 백지화하거나 재검토 하는 사업은 다양하다.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의 과중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의 장래성 등을 들어 백지화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민들의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민들의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와 감시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고 그 업적을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으려는 풍토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책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어서야 되겠는가. 단순한 전임자와 정당이 다르거나 차별화를 위해 역점사업을 백지화하는 행위는 옹졸할 수 없다.

자치단체들은 역점사업의 백지화나 축소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4년마다 주요 정책이 바뀌어서는 시장이나 군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안보 위협하는 무분별한 '작통권'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달 2일부터 안보 공백 우려에서 촉발된 '작통권' 논란이 가열되면서 일부 예비역 장성과 안보 전문가들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의 일부 핵심내용을 방송 토론 등에서 거침없이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까지 거러김없이 공개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작통권' 논란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국가안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념 갈등과 정치 대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작통권' 환수는 정치권과 행정부, 안보전문가 등이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고

한병선



이미 입시를 앞둔 수험생 부모들의 100일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성당·사찰마다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큼직한 엽기락을 교문에 붙여 놓기도 한다.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모습들이다.

합격 기도도 '모바일' 이라는데

얼마 전 입시생을 둔 두 분의 어머니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자녀들의 입시를 앞두고 성지(聖地)에서 개최되는 입시생을 위한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조건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한 분의 기도는 자녀가 건강한 몸으로 평소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반면 다른 어머니의 기도는 닿는 손길마다, 짙는 문재마다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였다.

나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한 어머니와 손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짙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두고 어느 쪽에 효험이 나타날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확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후자는 매우 적극성을 띤 기도라는 점이다.

거론하였듯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입장에서의 마음은 좀더 시원할 것이란 생각은 든다.

올해는 유명목사의 모바일 기도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것일까,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기도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화수(井華水) 때 놓고 기도하던 모습이나, 새벽기도, 새벽예배 등이 먼저 떠오르는 우리에게 아무래도 생소한 모습이다. 기도의 효험만 같다면 그것이 정화수든 모바일이든 무슨 상관이었으리만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과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데가. 이런 면으로 보면 돈을 내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기도는 좀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역시 가장 좋은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평론가·문학박사>

중고차 살때 엔진성능 꼭 확인해줘야

중고차 구입 때 차량의 엔진 점검 기준을 강화했으면 한다. 튜닝·메탈알코올·벤젠, 심지어 신나까지 섞여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사용했던 중고차는 차량 수명이 짧은 것은 물론 고장도 잦다고 한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지난 뒤에는 연중 중고차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힌다. 따라서 가짜연료를 사용했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물러도 현행 차량검사 수준으로는 거래대기가 어렵다.

를 꼼꼼히 따졌지만 이제는 중고차의 엔진 성능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이르렀다.

경찰 등 당국이 유사연료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서 은밀히 유사휘발유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것도 사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독자마당

사랑의 봉사활동에 고마움 전하며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정성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접하다보면 '정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따뜻한 세상이구나!'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KT광주네트워크 한사랑회'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봉사 활동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글을 쓴다.

또 그 따뜻함이 세상에 더욱 번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8월 18일 KT광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 박성인 총무과장과 자원과 이태정 과장이 직접 우리 원을 찾아 'KT한사랑회'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사실 여러 곳을 둘러봤다.

그리면서 회원과 가족 왕래가 없는 아이들이 2명이 1일 가족이 되어 영화도 보고 함께 식사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 긴 방화동안 가족 방문이 없었던 22명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들은 8월 30일 다시 원을 찾아 1일 날들이 계획을 맡아 아이들의 출출 준비를 시켜달라고 부탁. 다음날인 8월 31일 아이들 22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사랑 회원 10여분이 찾아왔다.

선종기 4대와 연결코드까지 들고서 말이다. 여러 아이들 생활하는 방에 선종기가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모처럼만의 외출로 신이 난 아이들이 영화관에 도착, 포스트를 보고 이 영화, 저 영화 등 제각각 제목을 말하자 일일이 그들의 의사를 반영했고 팝콘과 음료수 등 간식을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IMF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구직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보통 구인 광고를 내게 되면 모집부문·업무내용·근무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준다.

하지만 상당수 구직자들은 전화로 하는 일이 뭐냐,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격주휴무제를 운영하느냐, 접수서류가 뭐냐는 등 일일이 다 물어보는 일이 많다.

물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겠지만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했었다. 영화 상영 중에 몇 명 아이들이 화장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는데도 일일이 동행하며 보살피는 것이다.

집심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가 하면 운동까지 챙겨 왔다. 연락처를 적어주시며 자주 연락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모처럼만의 외출, 오랜만에 감상하는 영화, 맛있는 점심, 운동 그리고 넉넉한 마음의 정.

물어오는 차안. 아이들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과일 향내를 내는 아이들, 일본 침물을 이야기하며 박수 치는 아이들. 무엇보다 오늘 받은 운동용 어디다가 관 건지가 관심사였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은 복지사로서 참 즐거운 일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입장에 맞춘 일정으로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기억에 남는 외출이 되게 하는 봉사,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정성이 녹아있는 마음 씀씀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생활복지사로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다시 한 번 본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KT광주네트워크 한사랑회'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김순자·광주애육원 생활복지사

구직자, 채용담당자에 전화문의는 신중해야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IMF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구직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보통 구인 광고를 내게 되면 모집부문·업무내용·근무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준다. 하지만 상당수 구직자들은 전화로 하는 일이 뭐냐,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격주휴무제를 운영하느냐, 접수서류가 뭐냐는 등 일일이 다 물어보는 일이 많다.

물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겠지만

만 광고에 나와 있는 것조차 문의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 지원자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명도 제대로 모르기도 한다. 이런 지원자를 서류 검사에서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인사 담당자들은 전화 통화 한번을 했더라도 다 기억한다.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전형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송희건·광주시 북구 태령동

無等鼓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3분의 2가 변호사 출신인데다 현역 상원의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다.

우리나라의 개업 변호사는 6천200여 명으로 인구 7천560만명당 1명꼴이다. 아직도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태반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로스쿨 개교를 앞두고 각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 38개 대학이 시설 투자에만 1천988억원을

없는 지역(인) 장흥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법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심 관할권을 갖고 있는 지원이 있는 지역에도 아직 무변촌이 있다.

변호사회가 발간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 장흥지원에 관할 구역이 2개 군에 불과해 수요가 너무 적어 변호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변호사가 존재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이 변호사회측의 주장이다.

최근 보성군 등 장흥 인근지역 주민들이 장흥지원 관할구역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나섰다. 보성군은 현재 순천지원이 관할하고 있으나

장흥지원에 비해 거리가 먼데다 1심 재판에 걸리는 기간도 길다는 것이 서명에 나선 이유다. 변호사회와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정원을 늘려준 밥그릇 싸움에 앞서 모든 국민들이 고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은 어렵다.

/김재필 사법2부장 ajkim@kwangju.co.kr



유관무변촌(有判無辯村)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